

전문경영인 담화 및 오찬

합리주의 사회를 실력으로 성공하신 여러분이 신 주류입니다

지금 국가목표 놓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도달전략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과 공감대를 나누면서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분들 모시고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제가 대선후보 시절에 신주류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류(이회창 후보의 메인스트림론을 얘기하는 듯) 논쟁에 대한 신주류 논쟁이었고 나는 신주류 쪽이었습니다. 아주 깊이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우리사회의 주류가 부조리하고 기득권에 바탕을 둔, 불합리한 권리를 주장하는 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우리사회를 통합하고 이끌 새로운 주류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주류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그때 여러분과 같은 전문경영인, CEO들을 떠올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신주류의 중심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불합리한 기득권에 기초하지 않고 합리주의사회를 실력으로 열어가며 성공을 하고 일가를 이루는 여러분과 같은 분을 새로운 주류로 생각했습니다.

평소 오늘 같은 자리는 '콜링 카드'를 가지고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행정부 부하조직이 아니라 자유 시민 사회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오셨기에 일일이 제가 돌아가며 악수를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오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듣겠습니다. 2만 달러 시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